

Vol.332 March+April

세아가족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다. 마치 모차르트가 작곡한 피가로의 결혼처럼
용감하고, 세레나데처럼 제지 넘치는 느낌을 가진 사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력
있게 실행에 옮기는 세아E&T의 인재, 박영원 과장의 환상적인 선율을 따라가 본다.





세아의 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겨울이 지나듯
비온 뒤 굳어지는 땅처럼
세아의 봄은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져 있습니다.

세아 가족들의 봄,
우리의 마음에는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라는 이름의 싹입니다.

그 싹이 움을 틔우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토양, 세아에서
우리의 꿈은 함께 영어갈 것입니다.



Contents

Special Theme

<u>02</u>	프롤로그	열정
<u>04</u>	깊은생각 열린마음	열정이란 무엇인가?
<u>06</u>	세아의 이야기	세아에 스민 열정의 모습
<u>08</u>	why&how	관리보다 존중이 그들을 활활 날게 한다!
<u>10</u>	세아의 노하우맨	열정을 불태우는 나만의 비법!

Story in SeAH

<u>12</u>	SeAH inside	세아제강 판재사업부, #2CCL 본격 가동 SeAH Steel Vina, Golden Dragon Award 수상
<u>14</u>	SeAH Special Report	SeAH Steel UAE, API 강관공장 준공식 3기 챌린지 리더 과정 종료식
<u>20</u>	Open your Team	세아베스틸 연주팀
<u>24</u>	Talk by Specialist	세아 E&T 플랜트사업부 산업기기파트 영업팀 박영원 과장

Happy in SeAH

<u>28</u>	와이키키 브라더스	세아 멋쟁이 3인방 사랑의 베이커리
<u>32</u>	와글와글	내가 신입사원이라고?
<u>34</u>	Check List	열정, 취就하였느냐
<u>36</u>	행복한 나들이	세아제강 부산판재영업팀
<u>40</u>	세아가 응원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u>42</u>	세아뉴스	
<u>47</u>	사우동정	

〈세아가족〉 통권 332호 2011년 3+4월호

발행일 2011년 4월 11일 |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그룹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 홈페이지 www.seah.co.kr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3783-8163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 표지촬영 다뉴스튜디오 02-766-8025

열정

역사는 열정의 산물입니다.
그 험난한 고난의 탑이 열정입니다.

한 청년이 가족을 이뤄 내 집을 마련하는가 하면
세상을 좌우하는 리더가 되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열정의 산물입니다.

땀으로 알알이 채워진
열정의 열매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열정을 생각한다. 태극기를 앞에 두고 눈물 흘리는 금메달리스트, 어린 시절 어려움과 냉대를 무릅쓰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스타, 장애가 있어도 혼을 담은 노래로 좌절을 압도하는 이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부터 떨려온다. 자신은 물론 지켜보는 이마저 떨려오게 만드는 열정, 그 열정이란 무엇일까?

글 • 편집실

열정이란 무엇인가?

열정의 화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김연아의 눈물을 기억할 것이다.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는 여자 피겨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후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그 눈물은 억울함도 슬픔도 아닌 만족의 눈물이었다. 타고난 배짱과 강심장이라는 말을 들으며 늘 긴장하는 법이 없고 당당했던 그녀였기에, 그녀의 눈물에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마저 그간의 고생과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듯해 함께 눈가를 적셨다.

중학생이던 김연아를 가르친 신혜숙 코치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에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다. 어느 날 신 코치는 연습벌레로 소문난 김연아가 하루에 얼마나 트리플 러츠를 연습하는지 세어보기로 했다. 2시간 동안 65회를 뛰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세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나누어 보면 약 2분마다 1개씩 뛴 셈이 된다. 지독한 연습이 있었기에 지금의 김연아가 있지 않겠느냐며 당시를 회고했다.

다른 국가대표들처럼 그녀에게는 고관절, 허리, 무릎, 발목 등 많은 부상과 고통에도 스케이팅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성공이 행운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간의 수상경력과 눈부신 명성은 스케이팅에 대한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이뤄낸 성과였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열정

실패한 사람은 재능을, 성공한 사람은 열정을 이유로 든다고 한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없었어”라고 말한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재능이 없었다는 것이라면 꿈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나는 재능이 있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겠지만 의외로 성공한 사람 중에 그런 대답을 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열정을 가지고 계속 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천재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대수롭지 않게 듣고 ‘천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뿐이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천재를 넘어 꿈을 이룬다.

사무엘 율만의 시 ‘청춘’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었을 때 늙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잃었을 때 늙는다.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열정이라는 핵심동력이 있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살면서 한 번쯤 ‘열정’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그 뜨거움과 가슴 뛰는 에너지를 기억할 것이다. 내면에 품고 있는 뜨거운 감정. 항상 존재하고 있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잘 조절하고 이용하는가의 문제다. 케네스 토머스 미해군대학원 교수는 다음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일에서 재미와 열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느낄 때, 그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가 그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은 꿈들을 가지고 산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과 ‘적당히’, ‘대충’하는 사람은 다르다. 열정이라는 에너지는 또한 쉽게 전염된다.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금세 동화된다. 우리는 열정으로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의 사례에 귀를 기울이고 닮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열정을 되찾아 주자. 사소한 일에도 집중하고 노력을 다하면 그 열정이 타인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 열정은 메아리처럼 다시 되돌아와 당신을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 것이다.



세아의 문화 속에서 열정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열정은 각각의 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것들이 모여 기업을 발전으로 이끌었다. 산업 기반이 전무하던 시절 태동한 세아는 구성원들의 수많은 열정이 모여 무에서 유를 창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강관사업을 시작으로 철강제조산업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면서도 개척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열정의 역사가 바로 지금의 세아의 모습이다. 세아의 역사와 문화에 스민 열정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글 ●●〈세아 50년사〉발췌

세아에 스민 열정의 모습

일찍이 기업을 성장궤도에 올린 창업주의 신념

1960년 세아그룹의 모태인 세아제강을 설립했던 고 해암 이종덕 창업회장은 평생을 근검으로 일 관하며 기본과 원칙을 중시한 검약의 산 표징이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밤 열차를 타고 공장과 건설 현장을 찾아다녔고, 세아의 모든 공장의 설계가 지나간 달력 뒷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종이 한 장도 아꼈다. 레미콘 작업을 할 땐 차량 적재함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갈까지 끌어내렸으며, 현장에 떨어져 있는 볼트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그것이 비싸서가 아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땅에 묻히면 그냥 사라져 버리니 낭비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신기술, 신설비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자에는 만금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얻은 수익은 재투자하여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혼신을 다했다. 그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아제강은 강관 업계의 선두 기업에 오를 수 있었으며, 국내 최대의 강관공장인 포항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중동시장 개척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위험하다고 피하고, 불리하다고
피하면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가,
언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기회가 보인다면 일단 부딪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장 개척에 뛰어 들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제품개발의 노력

1970~1980년대는 두 번의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 무렵은 세아에 있어서는 큰 도약의 역사를 남긴 시기였다. 파이프의 대명사로 굳혀질 만큼 신개념을 도입한 앞선 제품 개발로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수출 길을 넓히는 대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당시는 산유국들의 분쟁으로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송유·유정용 강관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국내에서는 생산이 전무하고 기술적인 개념조차 희박했다. API 송유·유정용 강관 등 고품질 강관 생산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세아제강은 1978년 포항공장 준공과 함께 API 강관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서 해외시장 확대의 전기를 맞이하는 한편, 1억 불 수출의 탑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전 세계를 불황으로 몰아넣은 석유파동의 위기가 도약의 기회가 된 셈이다. 경쟁사들보다 3~4년 일찍 고부가가치 파이프를 생산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새롭게 확대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으로 어려운 시기에 큰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설비도 환경도 아니다. 오로지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쏟아 부은 세아인들의 열정과 끈기가 가장 큰 힘이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을 만들어 낸 것은 연일 먼지 자욱한 공장에서 새우잠을 자며 맨손으로 이뤄낸 세아인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망설임 없이 해외시장 개척

세아가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무렵, 중동시장 개척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위험하다고 피하고, 불리하다고 피하면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가, 언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기회가 보인다면 일단 부딪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장 개척에 뛰어 들었다. 1975년 쿠웨이트 진출 이후 중동 개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수출이 활기를 띠었다. 이라크에는 전봇대, 이란에는 전선관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독점 수출하며 파이프는 무조건 부산파이프라는 공식을 성립시킨 것도 이 무렵이다. 하지만 당시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사정은 전쟁이 한창일 때도 있었다. 여기저기 포탄소리가 들리는 전란의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데도 오히려 혼란한 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의아할 수밖에 없다. 위험은 있었으나 가능성을 믿고 사우디 담만에서 이란을 오가며 비즈니스 활동을 지속하여 기반을 닦은 덕분에 향후 많은 수주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원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감각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막의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사회만 달라진 게 아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직장인들의 열정을 이끌어 내려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돈으로 인재를 살 수 있어도 인재의 헌신까지 살 수 없다.

글 ● 전미옥 (CMI연구소 대표/한국사보협회 부회장)

관리보다 존중이 그들을 훨훨 날게 한다!

열정을 이끌어 내는 힘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테레사 M. 아마빌과 스티븐 J. 크라머가 조사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2010년 1,2월호)를 보면, 이 두 사람은 600명의 관리자에게 “무엇이 직원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관리자들은 ‘잘한 일에 대한 보상’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통의 직장인들의 대답이다. 관리자들이 가장 낮은 순위로 고른 ‘일의 진전’을 그들은 1순위로 꼽았기 때문이다. 업무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진전이 있다고 느끼거나, 뭔가 장애가 있거나 막힌 일을 도움 받아 해결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 한마디로 ‘일할 맛 나는’ 것이다. 좀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는 일에 한결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의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잘한 일에 대해 상사에게 칭찬을 듣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확실히 동기부여가 된다. 문제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쉽게 말해 그 ‘약발’이 오래 지속되려면 계속적으로 촘촘히 칭찬을 듣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무슨 일을 계속 잘하거나 자주 성과를 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여전히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부여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일은 그대로 남는다.

결론은 뜨거운 열정이 샘솟게 하려면 직원들을 좀 더 차원 높은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접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만 많이 주면 되는데, 그래서 누구든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부속품 대접이 아니라, 일을 진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성장하는 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성숙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존중받는 사람의 능력은 100% 발휘된다

핑크 캐딜락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화장품기업 메리 케이의 창업자 메리 케이 애시 회장은 종업원, 고객을 막론하고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머리에 ‘나는 존중받고 싶다’라고 쓰여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했다고 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인 SAS의 CEO 짐 굿나잇도 ‘종업원을 행복하게 해주고 최고의 혜택을 주는 것은 이들의 회사 성공에 대한 기여와 공로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보수에 큰 불만이 없어도 자기 발전이나 비전이 없는 회사는 미련 없이 그만 두고 나오는 상황도 이런 맥락이다. 물질적 혜택보다는 조직이나 동료로부터 존중받기, 다양한 업무 경험, 자기계발 등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동기가 된다. 결국 기업은 조직 내의 소통에 주목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

운데 일하는 동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자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면서 한 가지 업적을 만들고 “아,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구나”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일을 유리상자 속에 투명하게 담아야 한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든 직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생각해서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단순히 사무실에 걸린 칠판에 기록하고 지우는 방법이라도 좋다. 일을 하면서도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모호해서 예상하고 추측만 해서는 안 된다.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닦달하고 성과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빠른 판단과 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되면 그것만으로도 일할 맛이 난다. 그런데 칭찬도 받고 서로 축하도 하고 회사 차원의 기본 좋은 보상까지 받으면 그 효과는 200%가 된다. 이러한 훌륭한 인재는 뽀뽀하게 관리할 필요도 없고 해고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내적 동력에 따라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여 최선의 성과를 일구어 내며 무언가 큰일을 창조하는 축이 될 것이다.

훨훨 날고 싶은 기분을 내기 위해 날개를 만들어서 달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날 수 있는 힘이 있는 날개는 몸과 하나가 되어 진짜 둘은 날개라야 한다. 회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 따뜻하고 배려 깊은 일터를 만들어 직원 개인의 날개가 그 안에서 잘 돌아나게 한다면, 머지않아 훨훨 높이 날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촘촘히 칭찬을
듣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무슨 일을
계속 잘하거나 자주 성과를 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여전히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부여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일은 그대로 남는다.



신임과장들에게 듣는다 열정을 불태우는 나만의 비법!

열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일한다.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기로 소문난 세아의 열정적인 인재들을 모았다. 열정적인, 그리고 더 열정적이기 위한 그들의 좌우명과 이유를 밝힌다.

“肯思積踐(금사적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열정적인 행동의 근원은 '재미(즐거움)'입니다. 재미는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오죠. “안 되겠지? 소용없을 것 같아” 보다 “내가 최초로 해보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즐거움을 중도에 포기해선 안 되겠죠?

세아 ESAB 제품개발팀 양우성 과장

“나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다.”

때로는 익숙해진 현실에 머물고 싶어질 때에도 미래의 모습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노력합니다. 인간이 가장 오래, 진보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시키는 힘과 노력,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미친 듯 몰두해야 도달할 수 있다는 말처럼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한국번디 연구2팀 김종서 과장

“초심을 잊지 말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열정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신입생, 이등병, 신입사원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모르던 때지만 모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들해지는 열정! 항상 지나온 날을 떠올리며 초심을 잊지 않으면 어떤 위치에서든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번디 생산팀 강주형 과장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 번 되뇌었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말이라 좌우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포항 업무지원팀 최영훈 과장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 되자.”

우리는 일을 할 때 “될거야!!”(긍정적 사고)와 “되겠어??”(부정적 사고)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 사고는 의욕을 불러 일으켜 매사에 열정적이게 하지만, 부정적 사고는 냉매제와 같아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2011년, 세아베스틸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되겠어?”라던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2천억 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요? 100%죠. 지금 세아베스틸은 “될거야!!”라는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아베스틸 기획팀 신완철 과장

“위기를 기회로 삼자.”

안주하고 있는 현재가 위기이며, 매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이 열정을 더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아특수강 봉강판매2팀 배재상 과장

“세상을 사는 것만큼 멋진 경험은 없다.”

경험만큼 큰 재산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지금의 경험이 나중에 큰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 여긴다면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즐겁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아제강 회계팀 유창균 과장

“一勤天下無難事(일근천하무난사)”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지런하게 모든 일을 대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아특수강 부산영업소 손영하 과장



Inside #1

세아제강 판재사업부 #2CCL 본격 가동

세아제강 판재사업부 #2CCL(컬러강판 생산설비)이 3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이로써 세아제강은 생산량 증대는 물론 국내 굴지 기업의 입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

세아제강 판재사업부는 2010년 3월 #2CCL 도입을 위해 공장 건설 착공에 들어가 9월 설비 도입을 마치고, 12월경 공장을 완공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12월 말 콜드 런(COLD-RUN) 및 핫 런(HOT-RUN) 테스트를 시행하면서 상업생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세아제강은 #2CCL 가동으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광폭 알루미늄 컬러강판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2CCL의 생산능력은 연간 6만 정도로, 광폭 알루미늄 컬러강판과 가전용 컬러강판, 고급 건자재용 컬러강판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판하던 용융아연도금강판(GI)의 절반을 #2CCL 가동을 위한 소재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세아제강은 기존의 #1CCL 연간 생산량 15만과 더불어 #2CCL을 통해 연간 총 21만의 컬러강판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세아제강은 현재까지 주로 LG전자에 월간 1천씩 가전용 컬러강판을 판매하고 있는데 광폭재가 생산되는 만큼 공급량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급 건자재용 특수제품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세아제강은 현재 2교대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요 상황을 보면서 생산을 늘려 3교대로 전환할 예정이다. 세아제강 판재사업부는 #2CCL의 연간 생산능력을 풀 가동하기 위해 2011년 한 해를 광폭 알루미늄 도금강판의 안정적인 수요처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Inside #2

SeAH Steel Vina, Golden Dragon Award 수상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11회 황금용 시상식에서 SeAH Steel Vina가 2010년 큰 활약을 한 외국 투자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SeAH Steel Vina의 수상은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시아 전역에 세아의 이름을 빛내게 되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베트남은 매년 자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투자기업들의 큰 활약을 기리는 베트남 황금용 시상식(Golden Dragon Award)을 개최하고 있는데, SeAH Steel Vina가 2010년 활발한 사업활동 노력으로 수상 기업에 이름을 올려 세아의 이름을 빛냈다.

황금용 시상식은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하노이 시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1월 22일 진행되었으며, 베트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외국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총 80개, 여기 포함된 7개의 한국업체 중 SeAH Steel Vina는 철강 부문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행사는 베트남 국영 채널(VTV)에서 생방송으로 전역에 방영되기도 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베트남 황금용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성공적인 베트남의 외국 투자자들의 공로와 업적을 기리는 시상식으로 2001년부터 <베트남이코노믹타임즈>, 외국투자기관, 베트남기획투자부가 공동 주최해 왔다.

SeAH Steel Vina는 1995년 베트남 남부 동나이에 설립된 후, 1998년 2인치 및 4인치 조관기를 갖춘 제조공장을 완공하고 소구경 강관 생산을 시작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해온 노력으로 2007년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고 신뢰 기업상과 Best Brand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8년 12월에는 8인치 API 공장을 준공하여 베트남 최초의 API 제조회사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에는 구조관 공장도 준공하여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졌다.

SeAH Steel UAE, API 강관공장 준공식

중동지역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다

세아제강은 아랍에미리트에 API 강관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중동 및 북아프리카 API Line Pipe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SeAH Steel UAE의 강관공장은 연간 15만t 규모의 API 강관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세아제강은 이를 통해 중동 지역의 증가한 수요는 물론 아프리카 시장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현지의 주목을 받은 API 강관공장 준공식

세아제강의 아랍에미리트(UAE) 현지법인 SeAH Steel UAE가 API 강관공장 설립을 완료하고 4월 4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현지법인이 위치한 라스알카이마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여 현지 언론들의 높은 관심이 쏠렸다.

UAE 북단의 라스알카이마에 위치한 SeAH Steel UAE 공장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세아제강 이운형 회장을 비롯하여 라스알카이마의 통치자 Saud Bin Saqr al Qasimi, UAE 한국대사관 권태균 대사, 라스알카이마 투자청 General Manager Raed Swailem 등 총 200여 명의 주요 인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운형 회장은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UAE 공장 설립은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에 이은 세아제강의 글로벌 생산 거점의 한 곳으로, 강관제조 분야에서 50년 이상 쌓은 독보적인 생산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아제강이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준공식 행사는 세아제강 이휘령 사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이운형 회장의 기념사, UAE 권태균 한국대사와 라스알카이마의 통치자 Saud Bin Saqr al Qasimi의 축사로 진행됐다. 또한 주요 인사들의 JCO Press Bending 설비가동 세레모니를 비롯한 기념 행사와 공장 투어가 이어졌다.



4월 4일 아랍에미리트 북부 라스알카이마에 위치한 세아제강 UAE 공장에서 열린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 세아제강 이운형 회장(사진 왼쪽부터), 사우드 빈 사크르 알 카시미 통치자, 왕세자, UAE 한국대사관권태균 대사 등 주요 참석자들이 준공식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총 7,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한 SeAH Steel UAE의 강관공장은 라스알카이마 국가산업단지 내 약 260,000㎡의 대지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3-Roll Bending과 Press Bending 조관설비를 통해 연간 15만t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외경이 최대 120인치, 두께 60mm에 이르는 후속 대구경 강관으로, 주로 플랜트용이나 석유 및 천연가스 Line Pipe로 사용된다. UAE 시장에서 Roll Bending과 Press Bending 두 가지 방식으로 후속 대구경 강관을 생산하는 곳은 SeAH Steel UAE가 처음이다. 향후에는 API용 Expander 설비 설치와 함께 스파이럴과 스테인리스 강관 조관설비를 추가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서 창출되는 추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세아제강

최근 중동지역의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나 석유화학 플랜트 집중 건설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시추와 수송 관련 설



비투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세아제강은 중동시장의 수요 증가를 예측해 2010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착수해 왔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7일 단독 출자로 현지법인 SeAH Steel UAE를 설립하고, 이어 3월 관련 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후속 대구경 강관 제조공장 건설에 착공한 지 1년여 만에 완공했다.

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한 UAE 공장은 현지 수요업체를 중심으로 제품 공급을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중동권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세아제강은 2010년 현지 소재조달 협력체제를 체결하여 현지에 진출해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 업체들과 지속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등 SeAH Steel UAE의 초기 수요 안정화를 도모한 바 있다.

이번 UAE 생산거점 마련으로 세아제강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 곳의 주요 생산거점을 통해 세계 API 강관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됐다. 한국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고, 세아제강이 포스코 및 US Steel과 합작 투자한 미국 United Spiral Pipe에서는 북미 시장을, UAE 공장을 통해서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의 수요 대응이 가능해졌다.

3기 챌린지 리더 과정 종료식

세아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

제3기 챌린지 리더 과정의 마지막 7차 워크숍과 함께 종료식이 3월 16~18일 3일간 경기도 소재 우리인재원에서 진행되었다. 1년간 추진했던 프로젝트의 성과 발표를 앞둔 챌린지 리더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한편 교육과정이 끝났다는 커다란 아쉬움도 함께 교차했다.

20명의 3기 챌린지 리더들은 약 1년간 7차에 걸친 국내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기간 동안 개인별로 수행한 문제해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였다. 심사를 위해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와 한진기 상무, 세아베스틸 김병량 전무, 세아제강 김동규 이사, 세아특수강 박도훈 이사 등 임원들이 참여하여 발표자들의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심사 결과, 3기 챌린지 리더 과정의 개인별 문제해결 프로젝트 우수 발표자로는 세아특수강 봉강판매1팀 김성욱 과장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세아에샵 생산지원팀 이진오 팀장과 세아제강 생산계획팀 이대성 과장이 각각 2위와 3위로 호명되었다.



세아특수강 봉강판매1팀 김성욱 과장

종료식을 준비하면서 자료와 발표 준비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더 아쉬운 점은 이제 동기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열사 견학과 해외법인을 방문하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향한 현장의 모습을 통해 세아의 미래를 보았고, 특히 중국에서 시장 개척에 구슬땀을 흘리는 세아인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1년간의 교육은 저에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세아그룹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의 문제해결 과정, 조직 내 위치, 부하직원과 상사와의 관계 등 교육을 통해 조직력 극대화를 위한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급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그에 맞는 사고의 전환은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교육을 발판 삼아 세아특수강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아제강 생산계획팀 이대성 과장

챌린지 리더 교육을 받을 때보다 훨씬 향상된 모습으로 발표에 임한 동기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더 값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시 도움을 주었던 팀원들과 허명일 팀장님, 조진호 이사님, 그리고 3기 동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기들과 축구와 족구를 하면서 함께 땀을 흘리고 금세 친해졌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1% 생각의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처럼 창의적인 사고와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리더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행동해야 하는 지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아에샵 생산지원팀 이진오 팀장

모두 열심히 했고, 또 잘 하셨는데 몇 사람만 상을 받게 돼 안타깝습니다. 좋은 평가를 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3기 과정 진행을 담당한 배상현 수석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제 프로젝트는 혼자만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도움과 협조, 특히 현장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해 아쉽습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계열사들 견학을 통해 '세아'라는 깃발 아래 열심히 땀 흘리는 현지 주재원들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기회가 되면 중국에서 일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 챌린지 리더 교육 과정을 통해 소중한 동기들을 만나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리더의 역할과 팀원에 대한 코칭 스킬을 잘 활용하여 앞으로 세아의 미래에 건인차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사진 왼쪽부터] 세아제강 생산계획팀 이대성 과장, 세아에샵 생산지원팀 이진오 팀장, 세아특수강 봉강판매1팀 김성욱 과장



철두철미한 계획과 세심한 기술력을 자랑한다

세아베스틸 연주팀

뜨거운 쇳물을 단단하게 만드는 세아베스틸 연주팀의 업무는 마치 연금술사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다. 섬세하고 엄격한 업무처리와 집중이 요구되는 그 곳,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단단한 목표를 만나고 왔다.

고청정강 제조기술 확보로 세아업적상 수상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현상을 제어하여 제품의 생산성을 올리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세아 베스틸 연주팀이다. 홍성원 팀장을 필두로 한 연주팀은 제강에서 만든 1600℃의 액체 용강을 일정한 형태의 고체로 만들어 후공정에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되는 과정에서는 품질의 대부분이 좌우되므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2010년 연주팀과 제강팀이 함께 이뤄 낸 고청정강 제조기술 확보는 제강 조업기술의 큰 전환점이라 할 만하다. 특히 청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SAMP가 5.0 이하의 수준에 도달한 것은 세계 일류 품질이라 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또한 고청정강 제조기술 확보로 인해 제강 수율이 향상되어 원가가 절감되는 기술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져 2010년 세아업적상 대상을 수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소통과 장인 정신의 승리

연주팀은 세아베스틸이 특수강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데 전초병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강 연 220만t 생산 달성을 목표로 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설비 투자, 생산기술 확보, 현장 작업자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최적의 설비 투자와 그에 따르는 생산기술 확보

를 위해 현재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연주팀의 팀원들은 모두 한 배를 타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간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장 작업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활동을 실시하는가 하면, 학습동아리 카페를 운영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현장에서 스스로의 기술 습득 및 배양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130여 명의 연주팀은 한명도 빠짐없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은 물론 자기계발과 혁신을 통해서 개인과 팀 전체의 성장을 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린다. 세아베스틸 연주팀의 힘과 열정은 팀원들 간의 신뢰와 독려가 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세아베스틸 연주팀
홍성원 팀장



INTERVIEW

“사람 중심의 소통문화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것”

올해의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강 220만t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팀 전원이 공유하는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면 좋겠지만 근무환경이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셋째,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설비 운용에 있어 고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설비의 우발중단 제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깐요. 어차피 변해야 한다면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 이끌어가고자 한다고 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이예요. 장치나 설비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운용을 하는 최종적인 부분은 언제나 사람의 손이 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도 원리를 알기보다 단순히 반복하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응용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무직원은 물론 현장사원들의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4주 3교대를 하다보면 서로 만나기가 힘들어 팀 정보나 회사 이야기, 학습자료 등을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2달 정도 운영하면서 생일이나 경조사도 챙기고 칭찬릴레도 시행 중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 살펴보면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모를 먼저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현장에서는 팀워크는 물론 정보 공유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세아베스틸 연주팀

22

23

김창규 기장
불룸 공정 담당.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수많은 개선을 현장에 적용한 신임 기장.

김순철 기장
불룸 공정 담당. 불룸 설비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해온 불룸 연주의 산 증인.

홍성원 팀장
연주팀 총 지휘자. 끊임없는 노력과 아이디어로 혁신을 주도하는 최고 열정맨.

이강욱 대리
빌렛 연주 담당. 철저한 분석력을 가진 연주팀의 미친 존재감.

박병희 대리
불룸 연주 담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밤샘도 두려워 않는 엄청난 열정과 체력의 소유자.

조남진 기장
잉곳트 공정 담당. 불타는 학구열과 매사 솔선수범하는 연주팀의 모범인.

조남홍 기장
빌렛 공정 담당. 업무를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가 하면 패션감각까지 겸비한 멋쟁이.

윤성진
잉곳트 담당.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까칠한 카리스마로 완벽을 추구한다.

정준용 과장
연주팀의 살림꾼. 정확한 일처리와 타고난 유머감각으로 팀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최광웅 총괄기장
현장 총괄. 강한 카리스마로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포근한 마음으로 모두를 감싸 안는다.

김준호
연주팀의 활력소. 신입사원답지 않은 발표력과 분석능력, 살인미소까지 가졌다.



모차르트를 능가하는 열정의 음악

세아 E&T 플랜트사업부 산업기기파트 영업팀

박영원

Passionate music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에게는 첫 대면에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마치 모차르트가 작곡한 피가로의 결혼처럼 웅장하고 세레나데처럼 재기 넘치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력 있게 실행에 옮기는 세아 E&T의 인재, 박영원 과장을 만나본다.

생각의 전환, 새로운 도전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정을 뽐내어 내는 사람이 있다. 1공장의 증설을 맡고 있는 박영원 과장이다. 포항 세아 E&T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달부터 수소열처리 벨로 조립을 위해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에 장기 출장 중이다. 세아 E&T에서 그의 업무는 산업기기파트의 설계 및 설계기술 검토, 공사관리, 영업지원 등이다. 산업기기 분야는 다양하지만 주로 제강 관련 설비와 대형 저장설비 그리고 유틸리티 분야를 대응하고 있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설계 관련 지원업무에 관심이 많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각 부분들의 간섭검토와 구조검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난해 12월 Siemens PLM Software가 후원하는 PLM World 모델링 콘테스트에서 세아 E&T 플랜트사업부 산업기기 부문에 입상하여 전시되는 쾌거를 누렸다. 이번 성과는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전자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기술력으로 경쟁하여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늘 삼으로 땅을 파내면 그것이 편한지 불편한 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하죠. 하지만 기술환경은 계속 변하고, ‘더 편한 방법,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하면 새로운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전기로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기본 설계업체의 2D 도면 이해가 쉽지 않아, 빠르고 편한 설계검토를 위해 3D로 표현해 본 것도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공장이란 각각의 파트를 모아놓은 곳이다. 각자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일지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는 어려움이 많다. 그의 3D 도면은 설계는 물론 관리, 운영, 검토 등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현장의

이해도가 높아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산을 오르듯 인생을 오른다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힘들게 산을 오르다 보면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스스로를 한계로 내몰면서 자신을 키워가는 거죠. 산을 정복하고 내려왔을 때처럼 인생에서도 힘들었던 경험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박 과장의 인생론은 인생 역시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등산을 하는 사람의 준비가 그러하듯이 그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또렷하다. 올해의 목표는 업무와 자격증에 대한 도전이다. 엔지니어링 능력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CAE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개인적으로는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한다.

매사에 열심인 그에게 열정이란 무엇이나고 물었다. “열정이요?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들조차 즐기고 있습니다.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열정이 아닐까요?” 자신감 있는 미소에 힘든 경험도 즐겨온 그의 열정이 느껴졌다.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분야의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는 겸손한 그에게서 세아 E&T와 함께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열정을 찾을 수 있었다. 세아 E&T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며 업무영역을 넓히는 자신을 가장 보람 있게 여기는 박영원 과장의 열정 세레나데는 계속해서 세아 가족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힘이 되는 다섯 가지



1. 아내와 아들

부족한 것 많은 저를 믿고 열심히 사는 아내와 세상에 나온 지 얼마되지 않은 아들 건우의 해맑은 웃음이 저에게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2.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

얼마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과 언제나 자식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어머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항상 제 삶의 방향이 됩니다.



3. 친구들

항상 말없이 힘이 되는 친구들이 있기에 인생이 즐겁습니다.



4. 선배님들

친구들 못지 않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5. 직장동료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동료들. 세아의 성장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운명 공동체이며 가족입니다.

Profile

이름 | 박영원

별명 | 하회탈(웃으면 눈이 없어져서)

좋아하는 것 | 등산, 책 읽기

싫어하는 것 | 믿음이 가지 않는 것

좌우명 |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삶이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라 생각하며
배움에 게을리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열정으로
누구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활활 타오르는 열정은

그 이름만큼 뜨겁지만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쉽습니다.

당신의 열정 그래프 곡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어느덧 그 마음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잠시 잊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채워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빛나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세아 멋쟁이 3인방

사랑의 베이커리

세아의 멋쟁이 3인방. 바쁜 업무를 마치고 서둘러 달려온 곳은 서울 모처의 작은 케이크 가게. 평소에 마음만큼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했던 아내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기 위해서다. 최민석 대리의 소개로 만난 세 사람은, 케이크와 함께 밀린 수다도 다 꺼내 보이려는 듯 걸쭉한 입담을 과시했다. 그들의 새콤달콤 케이크 만들기가 시작된다!



보무도 당당히 케이크 가게에 세 사람이 들어선다. 최민석 대리를 제외하고는 케이크는커녕 요리도 해본 적 없는 남자들이 오늘 손을 하얗게 물들이게 됐다. 아내에게 얘기하고 왔다고 물으니 “당연히 비밀로 했죠. 촬영 있다고만 대충 둘러댔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한다. 약속이라도 한 듯 센스가 넘친다.

어색해도 괜찮아

알록달록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멋쩍은지 마주 보고 웃는다. 씩씩하게 웃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 본다. 앞치마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며 재밌어 한다. 예쁜 앞치마는 케이크 만들기 체험이 끝나도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도와줄 때 쓰겠단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탄탄해야 하듯 케이크도 마찬가지로 보자. 신중하게 케이크 아래에 기본이 되는 빵을 고른다. 빵은 카스테라와 무스 케이크 두 종류가 있다. 시원시원한 성격의 이한성 사우가 서슴없이 초콜릿 카스테라를 고른다. 고민하던 두 사람도 어느새 따라서 초콜릿 카스테라를 선택했다. 총 세 장의 초콜릿 카스테라 사이사이 시럽을 바르고 정성스럽게 생크림을 발랐다. 똑같은 빵인데도 생크림을 바르는 모양은 제각각이다.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선생님, 제 빵은 층마다 두께가 달라요~”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이 이마에 송알송알 땀까지 맺힌 채로 집중하는 모습들이 재미있다. 생크림을 가장 예쁘게 바른 것은 전석준 사우. 파티시에 선생님도 칭찬을 하신다. 칭찬을 듣고 싶은 나머지 두 사우드 경쟁하듯 빨리 바르는데, 선생님이 “빨리 한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라고 해도 마음이 급해서 자꾸 덧바르다보니 점점 더 두꺼워진다. 도자기를 빗듯이 둥글고 평평하게 각 층마다 생크림을 바르고 나면 기본 세팅은 끝. 다음은 예쁘게 장식하는 일만 남았다. 앞서 다른 체험자들이 만들어 놓은 케이크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생각해 봤다.

각자 머릿속에 콘셉트를 정하고 생크림 장식을 하기 위해 기본 각지를 골랐다. 각지는 생크림을 넣고 봉투를 조금씩 짜내서 생크림 장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다. 선택한 각지 구멍의 모양에 따라 생크림 장식이 케이크를 수놓는다.

3인3색 케이크 만들기

빵을 고를 때도 거칠 것 없던 이한성 사우는 케이크 위에 일단 아기 신발 모양의 장식부터 올리고 본다. “귀엽죠? 하하. 제가 올해 가장 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 아내고, 이게 저예요. 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죠. 오늘 답판을 지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귀여운 곰돌이 둘이 서로 마주 보고 앉았다. 연신 너스레를 떨어도 얼굴에 미소를 짓고



내 아를 낳아도! 이한성 사우 (세아홀딩스 성과관리파트)
올해의 가장 큰 목표인 2세를 향한 마음을 케이크에 담았습니다.
케이크의 주인공인 아기 신발을 신랑과 신부가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이제는 장식용 신발이 아니라 진짜 아기 신발을 사고 싶네요.

크림을 바르고, 장식을 올리는 최민석 대리의 아내 사랑이 케이크에 담긴다.

“제 콘셉트는 마치 사온 것 같은 케이크예요. 근데 보기보다 쉽지 않네요.” 모범생처럼 생긴 전석준 사우의 말이다. 작품을 만들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케이크 속으로 빠져들 것 같아 서로에 대한 첫 인상을 물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털털한 성격이고, 그 연결고리는 최민석 대리였다. 최 대리는 같이 스노보드를 즐기던 전석준 사우와 평소 잘 따르는 이한성 사우를 함께 만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첫 대면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스스럼없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친구가 되는 모습 같다.

“첫인상이요? 최민석 대리님이 좀 차가워 보이잖아요. 냉철한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자의 줄임말)처럼 보이고, 하하.”

대화 최민석 대리 (세아제강 경영기획팀)

결혼이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 너무나 닮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대화'겠죠.



“맞아요, 맞아. 처음에 강렬한 인상 때문에 저도 좀 긴장했었어요.” “그래도 생각 외로 자상하고 따뜻한 동네 형 이미지라서 반전이 있죠.”

이한성 사우의 말에 손뼉을 치며 맛장구를 치는 전석준 사우. 의견도 척척 맞아서 동생 둘이서 형을 들었다 놔다 한다. 허허실실 웃기만 하는 최민석 대리. “아~ 해봐. 과일이 남네. 입을 막아야겠어.” 무심한 척 말을 흘려도 다정하게 형처럼, 아빠처럼 파인애플을 먹여준다. 근무지와 업무는 달라도 성격부터 업무 스타일까지 서로에게 배울 게 많다면 추어올리는 형제 같은 그들의 우정이 따뜻하다.

바쁜 업무 때문에 조금은 소홀했던 아내에게 이번 체험을 통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세 사람. 손수 준비한 카드에 평소에 쑥스러워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담았다. 포박포박 써 내려간 글씨만큼 일도 사랑도 든든하게 가꿔 갈 세 사람을 기대해 본다.

사 먹는 게 제일 쉬웠어요. 전석준 사우 (세아제강 자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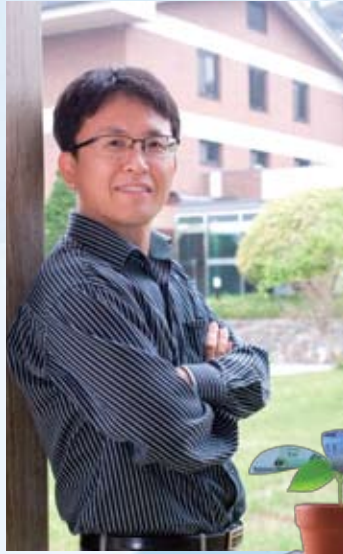
시작부터 손을 떨며 만든 내 생애 최초의 케이크! 만들면서 느꼈죠.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사 먹을 땐 몰랐는데 케이크 만들기, 참 힘들더군요.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세아제강 포항 박문선 중경1공장장

5년 동안 월급에 보너스까지, 받아도 쓰기 바빴다. 결혼비용을 다 지출하고 남은 돈은 딸랑 200만 원. 가끔 아내가 5년 동안 받은 월급은 다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 다시 신입사원으로 돌아간다면 눈부신 재테크 실력을 쌓아 아내에게 목에 힘 좀 주고 살고 싶다. 아직 미혼인 세아가족 여러분 재테크 잘 하세요~



세계 속에 최고가 되도록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임종표 PL

해외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쌓으면 앞으로 세계 속에 최고가 되는 세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어를 많이 배우고 싶다. 우리말뿐 아니라 외국어를 하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다던데. 그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설비에 미쳐 밤새도록 문제를 해결해 본다. 수험생 때 수학문제를 풀며 시간가는 줄 몰랐듯이!



여러분, 가정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세아제강 창원 업무지원팀 김주봉 팀장

사회에 첫발을 내 디딘 기쁨, 첫 월급에 대한 설렘, 사내 커플에 대한 로망, 일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 공존할 수 있는 시절, 바로 신입사원 시절이 아닐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먼저 재테크 계획을 세운다. 거창한 게 아니라 술값, 유흥비 등 지역경제 살리기 말고, 가정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 또, 자기계발에 충실하고 식스팩도 만들고, 열정적인 사랑도 해보고 싶다. 분명히 신입사원 시절에도 이런 결심을 했던 것 같은데 다 어디로 갔지?



내가 신입사원이라고?? 생생 Talk, 생생 Action

세아가족들의 생생하고 톡톡 튀는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 이 즐겁고 신나는 상상은 신입사원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연륜있는 사우들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의 첫 모습은 어떠했을까?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내가 파릇파릇한 입사 1개월 차 신입사원이 됐다! 속은 꼭 찬 강정처럼 연륜이 가득한데 외모는 탱탱한 젊은이라니. 꿈 속에서나 올 수 있는 황당하고도 놀라운 기회,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우주적 고민

세아로지스 경영혁신팀 차진국 팀장

내 인생 전체 로드맵을 준비하고 싶다. 발전하는 의학의 힘으로 길게는 1세기를 살아갈 수도 있는데 조직에 속했을 때는 물론, 은퇴 후 삶까지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중요한 건 입사 한 달 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생도 업무도 중요하지만 선배님들 이름이라도 다 외우면 다행이지 않을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돼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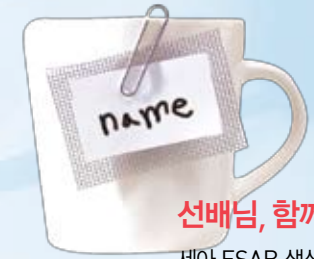
세아제강 회계팀 허성화 과장

먼저 아침 일찍 1등으로 출근한다. 선배님들의 이름을 외우는가 하면 취미나 공감대 형성으로 빨리 친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입사원다운 패기를 보여주기 위해 두문불출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 본다. 아!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기 위해 고민하는 두근거림도 빠질 수 없다. 빨리 독립할 수 있게 재테크도 시작해야 하고, 어휴~ 정말 바쁠 것 같다.

무한도전, 청년 양동삼

한국번디 업무지원팀 양동삼 팀장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 중에서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이 머리를 스친다.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무엇이든 물어보고 배울 것이다. 밤을 새워도 행복하고 가슴이 마구 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젊으니까 100개국 해외여행도 하고, 100억 연봉의 CEO가 될 계획도 세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청년 양동삼이니까!



선배님, 함께 하고 싶어요

세아 ESAB 생산기술팀 곽희진 팀장

입사 후 바로 창원공장 신축 현장으로 발령 받아, 선배님들과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부서의 여러 선배님들과 가까워지고, 함께 할 시간을 꼭 만들어 조언을 구하고 싶다. 직장생활 중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도 지금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입사원 여러분, 꿈은 크게 키우고 선배님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나의 열정지수는 얼마나 될까?



결과

※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V표를 하세요. (각 항목 5점)

항목	체크
1. 주위 사람들의 말에 주저하거나 쉽게 포기한다.	☐
2.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성공 혹은 실패를 먼저 떠올린다.	☐
3.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감 부족으로 주저한다.	☐
4. 낯선 환경에 부딪히면 두려움부터 앞선다.	☐
5. 현재보다 과거가 생각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
6. 학원이나 헬스클럽에 등록했다가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둔 적이 있다.	☐
7. 운동이나 어학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
8. 매사에 부정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
9. 미래의 비전보다 눈앞의 보수에 집착하는 편이다.	☐
10. 어떤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위기가 닥치면 쉽게 포기한다.	☐
11. 성공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
12.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13.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
14.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15. 성공, 열정, 비전 등에 관련된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
16. 주위 사람들이 성공,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귀찮다.	☐
17. 인생은 그저 쉽고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
18.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다.	☐
19. 지금 하는 일에 성공하기보다는 로또 복권 당첨을 믿는 편이다.	☐
20.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다.	☐
21. 일에 몰두하기보다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생각한다.	☐

80점 이상 : 열정이 부족한 상태, 하고 싶은 일도 쉽게 포기한다. 또 어떤 계획이나 일을 실행할 때 열정 부족 탓에 부정적 영향에 휘둘리기도 한다.

60점 이상 :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 서서히 포기, 한계, 좌절 등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내면에 쌓이는 불만과 두려움 때문에 사소한 일로 주위 사람들과 언쟁을 벌일 수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40점 이상 : 낮은 전압이 흐르는 전자제품 상태. 하는 일에서 성취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딴 곳을 가웃거린다. 일에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신의 열정에 적신호가 깜빡인다는 사실! 단, 부족한 열정지수 결과를 얻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열정지수 테스트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도전해 보세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만 있다면 부족한 열정지수는 금세 상승곡선을 타게 될 겁니다.

영남의 독수리 오형제를 아시나요?

세 아제강 부산판재영업팀



부산,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파도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 곳. 팀워크가 단단하기로 소문난 팀이 있다. 부산판재영업팀의 봄 햇살 가득 머금은 나들이는 시작부터 웃음이 넘실거린다. 5명이기에 더욱 단단히 뭉친 그들의 요트 승선기를 공개한다.

출동! 요트 앞으로

거짓말처럼 구름이 걷혔다. 해운대에는 크고 작은 요트들이 곳곳에서 넘실대고 있었다. 부산판재영업팀의 독수리 오형제, 다섯 남자는 바다내음 물씬 풍기는 맨파워를 보여주겠노라며 큰 소리를 쳤다. 그리고 그 큰 소리는 허투루 들어 넘길 것이 아니었다.

단단한 팀워크는 단단한 조직에서 나온다. 부산판재영업팀은 다른 팀들과 차이점이 조금 있다. 다른 지역은 대기업이면 대기업, 가전이면 가전, 모두 팀이 나누어져 세부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산판재영업팀은 영남을 중심으로 판재사업부에서 나오는 전 품목을 총괄하고 있다. 그로써 팀원들은 자신만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팀원들의 업무를 서로 이해하고 외근이나 출장 시 공석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가족적이라고 소문이 났다.

다섯 명의 팀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비장한 분위기가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맞춰 입은 티셔츠에서 나온다. 이번 나들이를 위해 막내 백광일 사우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팀원들의 엄격한 사전 투표 과정까지 거쳐 준비한 것. 티셔츠의 의미는 프린팅된 문구처럼 “HAVE MORE FREE.” 영업팀 특유의 자유로운 사고와 용기로 뚝뚝 뭉쳤으면 하는 마음에 골랐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여유있는 미소의 이진현 팀장 외에는 요트 타는 게 생전 처음이라는 팀원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하다. 오전에 내린 비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데도 모두들 추운 기색이 없다.

매년 3월 국내 제일의 요트 선수들이 경연을 벌이는 곳,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수영만요트경기장.





팀원들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는
이진현 팀장과 그 노고와
마음을 알고 더욱 푹푹 뭉쳐
단단한 팀워크를 만드는
부산판재영업팀

수십 대의 요트가 정박해 있는 기다란 선착장을 지나 오늘 부산판재영업팀을 실어 다 줄 요트에 한 명씩 승선했다.

멀리 해운대의 백사장과 마천루가 보이고 앞으로는 APEC 정상회담이 열렸던 누리마루와 동백섬이, 뒤로는 광안대교가 펼쳐졌다.

“와, 이렇게 요트 타고 나오니까 정말 좋네요. 나중에 가족들과 한번 요트를 타러 와야겠어요.” (이진성 대리)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요트를 타 볼 생각은 왜 못해 봤는지. 종종 이렇게 바다로 나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네요.” (김길호 과장)

“광일아, 타이타닉 생각난다. 맞제?” 툭 내뱉은 이진성 대리의 말에 팀원들이 한번 해보라고 아우성이다. 엉겁결에 선미에 선 두 사람. 수준급 포즈를 보여줬다.

신바람 나는 바다여행

낚시도사라는 이진현 팀장에게도 애매한 낚시 포인트에는 속수무책이다. 꼼꼼하게 미끼를 꿰고 던져보는데. “팀장님, 한 마리 잡아보십시오. 저희 오늘 매운탕 좀 먹여주세요” 뒤에서 구경하던 정춘화 과장이 한 마디 거든다. 야심차게 지렁이 미끼와 낚싯대도 챙겼건만 이게 웬일일까. 푸른 파도만 출렁일 뿐 물고기는 간 데 없다. 허탕만 치고 빈 낚싯대만 거둬들이면서도 웃음 일색이다. 영남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팀답게 배포도 남달랐다. “저 뭐 잡았어요! 지렁이! 히히” 막내 백광일 사우의 농담에 팀원들의 웃음이 물보라처럼 부산 앞바다에 퍼진다. 작은 장난에도 큰 맛장구를 쳐 주는 팀원들의 모습이 마치 가족 같다.

광안대교가 잘 보이는 먼 바다까지 나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선장님과 선원들이 돛을 펼쳤다. 다 큰 남자 세 사람의 키 정도는 되어 보이는 커다란 돛을 줄을 당겨 힘차게 당기면 펄럭이는 돛이 뽐뽐하게 바람을 받는다. 바람과 엔진의 힘을 받아서 더 빠르게 나아가는 요트처럼 부산판재영업팀의 분위기도 바람을 타고 점점 더 신바람이 난다. 서로 사진도 찍고 바다와 풍광을 둘러보는 사이 어느덧 체험시간이 다 지나 물에 닿았다.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서로에게

아쉬운 마음에 벚꽃이 만개한 달맞이 고개로 발길을 돌린다. 왼쪽으로 넘실거리는 해운대와 벚꽃길이 펼쳐져 봄기운을 더한다.

영화 <해운대>에서 강예원이 이민기를 기다린 장소로도 유명한 언덕 위의 집에서 차 한 잔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로 했다. 야외 테라스는 이른 봄인데도 따스한 햇살을 머금어 포근했다. 행복한 나들이의 마무리는 평소 담아두고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분출할 수 있는 롤링페이퍼 타임이다. 누가 볼 새라 이쪽저쪽 테이블로 흩어져 팔로 가리고 쓰기 바쁘다.

팀장님이 열심히 롤링페이퍼를 쓰고 계시는 동안 김길호 과장이 한 마디 한다. “저희 팀장님은 늘 팀원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먼저 챙기시는 분이예요. 영업팀은 기죽으면 안 된다며 사기를 북돋아주시죠. 방패가 되어 줄 테니 밖에서 자신있게, 또 소신있게 행동하라고 항상 힘을 주시는 팀장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팀원이 적은 대신 서로 사정을 다 아니까 형처럼 동생처럼 챙기는 건 물론이고요.”

때론 호랑이 형님처럼, 때론 따뜻한 포용력을 갖고, 외부에서 업무를 하는 일이 많은 팀원들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는 이진현 팀장과 그 노고와 마음을 알고 더욱 푹푹 뭉쳐 단단한 팀워크를 만드는 부산판재영업팀. 그들의 팀워크에 세아뿐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을 믿어본다.



1. 큰형처럼 큰마음을 가진 이진현 팀장
2. 터프함과 섬세함을 겸비한 정춘화 과장
3. 팀 내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김길호 과장
4. 외모는 내가 지킨다, 이진성 대리
5. 분위기 메이커 막내, 백광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봄은 어느 곳에서나 평등하게 온다. 그러나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미치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하는 공동체 노인복지센터'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그 마음이 몇 배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어느 가정에도 마음까지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라본다.

글 ● 세아제강 판매 품질경영팀 박상균 소장

봄이 찾아온 그곳

봄기운이 만연한 4월, '함께하는 공동체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조금 일찍 도착해 들어간 사무실은 깔끔하게 잘 정돈된 모습이었고, 앞마당에 펼쳐진 푸른 잔디는 싱그러운 봄날의 기운을 만끽하는 것 같은 기분 좋은 날씨였다. 사무실 한쪽 벽을 보자 이곳에서 보살펴 드리는 약 90여 명의 노인 분들 성함이 가득 메워져 있었다. 일하셨던 분들의 애정과 수고로움이 마음에 와 닿았다.

봉사활동 일정에 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참여한 사람들이 2명씩 3개 조로 역할을 나눴다. 1조는 사무실 뒤쪽 한 편에 쌓여 있는 나무를 알맞은 길이로 자르는 일을 맡았다. 가지고 갔던 전기톱 날이 무더져 교체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무딘 톱날을 빼고 새 것을 끼우려는데 톱날의 길이가 맞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무딘 톱날을 다시 달아 작동시키자 이번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전전공공 전기톱과 싸우며 무딘 칼날로 겨우 작업에 임했다.

할머니의 미소

나무를 자르기 시작한 1조를 뒤로하고 2조와 3조가 차량으로 10여 분 가량 이동했다. 산길을 지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이름 모를 꽃들을 감상하며 '이제는 완연한 봄이로구나'하는 잠깐의 여유로움을 누렸다.

좁디좁은 골목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1960년대나 볼 수 있었던 흙으로 지어진 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덕지덕지 이어 붙인 지붕과 벽,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기둥, 비가 오면 금방이라도 빗물이 방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은 낮은 문턱의 방 안에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2조의 오늘 할 일은 할머니 집 마당 한 편에 자리 잡은 고장 난 수도밸브 교체와 집안 청소였다. 수도밸브는 누군가가 작업을 했는지 이미 교체된 후였다. 할 수 없이 청소를 하기 위해 집 안을 들여다본 순간 지난겨울 혹독했던 추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부엌의 수도가 얼어서 불로 녹이다가 생긴 그을음이 벽면을 검게 덮고 있었고, 또 다른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옆으로 줄줄 섰다. 다음에 올 때는 밸브를 구해서 꼭 바꿔드리겠다고 약속하며 구석구석 더 손 볼 곳은 없는지 살폈다.

다른 곳으로 향했던 3조가 찾아간 곳은 할머니와 아들, 손자 3대가 모두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집이었다. 그래서인지 집안 곳곳에서는 사람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흔적이 역력했다. 가지고 간 빵과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 두려고 냉장고 문을 열려 하자 할머니가 겸연쩍은 미소를 보이며 극구 말렸다. "청소를 못해서 창피해서 그래"라고 하셨다. 3조의 주 임무는 고장 난 문 손잡이를 교체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 문제는 집안 청소였다. 곳곳에 쌓여 있는 물건과 쓰레기를 일단 한 곳에 긁어모은 뒤 분류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쓸어담을 도구를 찾았지만 적당한 게 없었다. 방안을 살펴보니 작년 여름에 썼을법한 부채 하나가 눈에 들어와 부채로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정돈을 마쳤다. 청소를 마치고 집안은 훨씬 넓고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일을 모두 마치고 할머니에게 작별인사를 건네자 "또 언제 와?", "내일 또 오는 거지?" 재차 물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처음 집결지에 돌아가니 1조에서 작업한 통나무 더미가 어느덧 봉우리를 이루고 있었고, 작업한 사람들의 옷은 땀방울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기쁨을 배로 나누며

오늘 분주히 움직이며 했던 일들은 보잘것없이 작고 하찮은 일일지 모른다. 작업을 끝내고 집결 장소로 이동하면서 군산 변두리를 둘러본 감상은 어렵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지극히 소소할지라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반성해보았다. 지금의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봉사활동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 '함께하는 공동체' 정말 멋진 말이다. '함께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이 있다. 또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할머니들을 다시 만나 뵈고 못다 한 이야기도 함께하며 보람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



SeAH NEWS

2011
MARCH+APRIL
VOL. 332

» Group News

세아그룹, 일본 지진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기탁

세아그룹은 7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이재민들의 조속한 재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동참하여 성금 1억 원을 대한적십자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탁에는 회사 차원에서의 성금 1억 원 외에 직원들이 직접 모금한 855만 원도 함께 전달했다. 세아제강은 전국 5개 사업장 578명의 직원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인 모금에 참여했으며,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아에샵도 자체 봉사단체 '세아드림'을 중심으로 95명의 직원들이 동참했다.

윤리경영 실무책임자 간담회 개최

2월 25일 세아홀딩스 대회의실에서는 계열사의 윤리경영 실무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무 책임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윤리경영사무국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2011년 세아의 윤리경영 실천과제를 점검하고, 그룹 전반의 윤리경영 수준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등 3개사의 2010년 실적과 2011년 계획 발표를 비롯해, 기업사회연구원 양세영 원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윤리경영 실무 책임자의 역할 증대와 세아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 세아제강

업무 매뉴얼 컨설팅 시행

세아제강은 경영혁신팀 주관으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KMAC)과 함께 3월 9~15일까지 5일간 업무 매뉴얼 구축 수준에 대한 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 컨설팅은 세아제강의 2011년 경영방침인 '50년 노하우의 매뉴얼화로 업무 효율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본사, 포항공장, 군산공장의 23개 팀 45명을 대상으로 했다. 세아제강은 컨설팅을 통해 내부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범위와 접근방법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포항공장, 경영설명회 개최



포항공장은 3월 16일 하재우 대표이사 주재로 경영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경영설명회에는 사무직 팀장, 단위 공장장, 노동조합 상집, 대의원, 전문직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실적과 3월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개선·제안맨, 신기록 수립 공장, 금연 성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

» 세아베스틸

2011년 기장 연수회 개최



세아베스틸은 3월 25~26일 1박 2일간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서 이승휘 대표를 비롯한 임원, 팀장, 기장 등 총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의 화합과 융화 창출을 테마로 2011년 기장 연수회를 개최했다. 대표이사 간담회와 팀 파워 훈련 및 '행복한 커뮤니케이션 고수되기' 특강, 둘레길 산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연수회에 참가했던 기장들은 "팀워크의 중요성과 도전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팀과 팀워크 그리고 나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20회 국제 금형 및 관련 기기 전시회 참가



세아베스틸은 3월 16~20일까지 5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0회 국제 금형 및 관련 기기전에 참가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360여 개 금형업체가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회에서 세아베스틸은 13,000t 프레스 조형물, 자동차 범퍼 금형 등을 내놓아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아베스틸은 국내 완성차 업계, 전자회사 관계자, 기타 금형 관련 업체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세아베스틸의 금형강 생산 및 특허 보유와 타사 대비 우수한 품질 등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세계 물의 날' 정화활동 참여



세아베스틸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군산 서수면에 있는 탑천 영창교 주변 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는 군산시와 협약한 '물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1사1하천

정화 및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위한 것으로, 군산시청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세아베스틸은 물론, 군산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했다. 세아베스틸은 이날 정화활동에 약 3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하천 주변의 많은 부유물과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하천 정화 및 수질오염 예방 활동은 매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56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세아베스틸은 4월 4일 56주년 창립일을 맞아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거래처, 모범 사원,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이

승휘 대표는 창립기념사에서 "나보다는 우리를,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

하는 보다 선진화된 의식과 자세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의식과 성숙한 자세로 사랑 받는 기업을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2011년 1분기 우수사원 포상



세아베스틸은 4월 8일 2011년 1분기 우수사원 포상을 각 본부별로 실시했다. 1분기 우수사원은 기능직 45명, 사무 기술직 7명으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동료애 및 타의 모

범이 되는 사원들을 각 팀에서 추천하여 선정했다. 포상자에게는 표창장 및 부상이 전달되었다. 한편, 2분기 우수사원 포상은 7월 중에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대 나노소재공학과 방문



충남대 나노소재공학과 재학생 약 45명이 4월 8일 세아베스틸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 견학을 통하여 재학생들이 실무 감각을 배양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

를 찾게 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세아베스틸 홍보 비디오 시청, 회사현황 및 연구소 운영 소개, 특수강과 대형단조 생산현장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견학을 마친 학생들은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깊이 있는 학습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워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세아특수강

‘사랑의 동전 모으기’ 저금통 기부



세아특수강은 직원 개개인이 자투리 돈으로 모은 ‘사랑의 동전 모으기 100원의 기적’ 저금통 70여 개를 4월 11일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100원의 기적’은 굿네이버스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 세계의 불우아동 지원을 위한 범국민적 모금활동이다. 세아특수강은 2007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를 위한 윤리경영 활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랑의 쌀 나누기’ 결식아동 돕기



세아특수강은 노동조합과 함께 포함지역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기부행사를 가졌다. 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이번 기부행사는 포항 송림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담긴 모금으로 이루어졌다. 임성수 노조위원장은 “영세민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번디

평택공장, 경영전략회의 개최



평택공장은 2월 23일 롯데연수원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무지개 원리’를 통해 ‘인생 해설가’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차동엽 강사의 특강

을 시작으로, 회사 경영방침을 비롯한 각 본부별 2011년 목표와 KPI 발표가 진행됐다. 전규동 대표는 강평을 통해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훈련

을 강화하고, R&D를 통한 혁신제품 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2011년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공장, Auto CAD 초급과정 실시



광주공장은 직무능력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실현시키고자 2월 22일~3월 18일 조별 2주 과정으로 Auto CAD교육을 실시했다. 폴리텍 V대학과 산학협동으

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초급과정으로 Auto CAD의 이해와 간단한 도면을 작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39명의 직원들은 향후 중급과정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공장, 6 Sigma Green Belt 교실운영

광주공장은 6시그마를 현장 및 사무기술직으로 확대, 교육함으로써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품질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4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6시그마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경영혁신컨설팅과 연계한 이번 교육은 53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6 Sigma Green Belt 취득을 목표로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한국번디는 2012년부터 인재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현장팀장, 공정주임은 본 자격 취득을 필수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공장,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자원사업 선정



광주공장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최하는 ‘2011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월 30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협정체결식을 가졌다. 프로그램

타이틀은 ‘함께’로 정부로부터 3천 3백만 원을 지원받아 4월부터 11월까지 노사파트너십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광주공장에서는 원원 노사워크숍 실시, 사내 밴드 조성, 사내 자격증제도 추진 등 다양한 노사화합 행사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공장, 3·1절 마라톤 대회 출전



광주공장 임직원 20명이 3월 1일 광주일보에서 주최하는 ‘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 출전으로 임직원들은 동료와 함께 뛰며 일체감

을 조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직원 가족도 함께 참석하여 ‘웃음이 깃든 아름다운 광주공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나-회사-가족이 하나라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 세아에샵

대리점 사장단 간담회 실시



세아에샵은 3월 16일 2011년 상반기 대리점 사장단 간담회를 실시했다. 대리점과의 상호 협력관계 증진과 매출목표 달성, 현 시장상황 공유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무학산 서원곡

에 집결 후 등반행사로 시작했다. 본격적인 간담회는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유덕상 대표를 비롯한 임원과 대리점 사장단 등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세아드림’ 일본지진 사내 모금활동 실시



세아에샵 봉사동아리인 ‘세아드림’에서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 지진피해자를 위해 사내 모금활동을 실시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4월 1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모금 활동에는 95명이 동참해 최종 약 110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성금은 적십자를 통해 일본에 전달될 예정이다.

금연사업장 선포



세아에샵은 연초 회사 전체를 금연 사업장으로 선포한 이래 금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3월 조회에서는 금연 성공자 3분 스피치를 통해 금연활동의 성공사례를 소개

하고, 4월 12일에는 니코틴을 측정하는 금연 테스트를 실시했다. 세아에샵은 흡연자 ZERO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세아메탈

17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세아메탈은 3월 18일 창원 본사 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7주년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창립 17주년 기념식을 맞아 고윤준 대표는 “무한 경쟁에서 세아메탈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임직원의 끝없는 도전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 경쟁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건실한 회사를 만들고, 창조적인 정신으로 항상 새로운 것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회사를 위해 노력한 사원과 제ан, 아이디어 시상도 이루어졌다.

창원공장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세아메탈 창원공장은 3월 2~4일 3일간에 걸쳐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를 받은 결과, 3월 14일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최종 획득했다. 세아메탈 창원공장의 환경경영인증시스템 인증은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품질 인증과 더불어 수주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아메탈은 향후 지속적으로 환경경영 세부목표 달성을 통한 그린환경경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강남도시가스

직무수행능력 평가 실시



강남도시가스는 2월 25일 대리 이하 사원 55명을 대상으로 도시가스회사 직원이 업무상 갖추어야 할 직무지식 함양 정도를 평가하는 2011년 사원승격고시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공급규정, 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와 회사 사규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의 결과는 승진심사 자료와 능력기급제에 따른 직원 연봉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강남도시가스는 인재경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부 교육이나 평가 외에 각 분야별 외부 전문 기관의 위탁교육을 강화해 임직원들의 직무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분기 조회 및 외부강사 특강 실시



강남도시가스는 4월 1일 강당에서 본사 전 임직원 및 고객 센터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조회를 실시했다. 임진호 대표는 계획 대비 다소 미달한 1분기 경영 실적을 설명하면서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신규 수요처 개발과 고객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회에 앞서서는 “건설 재해 현황 및 중대 재해 사례”를 주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센터 이기택 부장의 특별강연이 실시됐다.

» 세아로지스

신규사업장오픈

세아로지스는 그룹 물류 합리화 방침에 따라 연초 포항항과 군산항을 통한 수출입 화물의 항만하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포항하역팀과 군산하역팀을 발족한 데 이어, 3월 1일 수출입통관팀을 신설하여 통관업무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운송, 배선, 통관, 하역 등 일관 물류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광양 해덕스틸 및 광양합금철의 원활한 물류서비스와 전남권 대외 영업력 강화를 위해 4월 1일 광양영업소를 개소하는 등 전국 주요 도시에 물류거점을 늘려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차별화된 물류서비스 실현에 한층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코레일로지스와MOU 체결

3월 28일 세아로지스는 코레일로지스와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양해각서를 통해 철도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GLORY 화물 기차 태우기’ 운동 확산의 적극적인 참여, 철도물류 활성화를 통한 철도수송 물량 증대, 신규사업 추진 등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현재 7월 완공을 앞둔 오봉지류센터는 2,000천 평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는 철도운송을 통한 대량 수송으로 화물 보관량의 증가와 수도권 지역의 신속한 납기, 물류비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제18기 정기 이사회 개최



2월 23일 세아해암 학술장학재단의 18기 정기 이사회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재단이사, 감사 등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0년도 사업실적과 2011년도 사업계획 안건을 승인하고,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아홀딩스

- 입사**송준걸 홍보파트 ●조의**최승미 비서파트[조모]

세아제강

- 입사**이선우 본사 회계팀 | 최수진 본사 회계팀 | 조민우 본사 자금팀 | 박연옥 본사 대리점 | 장순율 본사 STS영업팀 | 정정현 본사 STS영업팀 | 이금미 본사 구매팀 | 이유란 본사 수출2팀 | 윤미선 본사 대리점팀 | 이찬호 포항 업무지원팀 | 정수영 포항 물류팀 | 최보영 창원 생산팀 | 장윤근 군산 생산2팀 | 김금택 군산 생산2팀 | 정병철 군산 생산1팀 | 유정훈 강관2공장 생산팀 | 안성지 강관2공장 생산팀
- 결혼**박효원 본사 인력개발팀 | 지규용 본사 경영기획팀 | 고문중 본사 컬러강판영업팀 | 염지원 포항 안전환경팀 | 허남진 강관2공장 생산팀
- 출산**서광수 본사 자재팀 | 전석준 본사 자재팀 | 박종학 본사 실수요팀 | 김무봉 포항 생산1팀 | 황병준 포항 생산1팀 | 정성호 포항 생산1팀
- 조의**김보영 본사 자금팀[조모] | 장원주 본사 컬러강판영업팀[조모] | 박경식 본사 아연도강판영업팀[조모] | 임종수 포항 물류팀[부친] | 류상곤 포항 생산2팀[부친] | 이정중 포항 도금반 | 이은중 창원 업무출하반[장인] | 권대충 창원 업무출하반[부친] | 최정배 군산 생산1팀[부친] | 최정호 군산 생산2팀[부친] | 윤창수 강관2공장 생산팀[부친]

세아베스틸

- 결혼**이동렬 제강팀 | 홍관의 품질보증팀 | 김동근 에너지관리팀
- 조의**김진호 자)생산관리팀[부친] | 김성운 압연선비팀[부친] | 신현길 연주팀[부친] | 조옥래 주조팀[모친] | 안오진 소형정정팀[모친] | 최인수 소형정정팀[장인] | 양정석 품질보증팀[장인] | 최영규 압연설비팀[장인] | 임성환 압연설비팀[장모]

세아특수강

- 입사**임현진 총주 생산팀 | 남기태 총주 생산팀 | 김민수 총주 품질보증팀 | 이형호 포항 지원혁신팀 | 서현석 포항 생산팀 | 김근우 포항 생산팀 | 김성규 포항 생산팀 | 이효동 포항 생산팀 | 이동희 포항 품질보증실 | 류상우 회계파트 | 김재홍 | 이상현 | 배재엽 | 김창민 | 안일환 | 조정민 | 손용화 | 박경환 | 김동훈
- 결혼**이경훈 구매팀 ●출산**남기연 포항 품질보증실 | 김호중 봉강판매2팀
- 조의**최극태 부산영업소[부친] | 이정애 총주 지원혁신팀[조모] | 김준영 총주 생산팀[조모] | 박용학 포항 생산팀[부친] | 김병권 포항 [부친]

한국번디

- 입사**신석호 평택 연구3팀 | 김지승 평택 수출팀 | 김도령 평택 생산팀 | 노민한 평택 생산팀 | 노춘석 평택 생산팀 | 장성민 평택 생산팀 | 박형근 광주 품질경영팀 | 정두호 광주 생산물류팀
- 결혼**문병국 평택 인력개발팀 | 장소라 광주 업무지원팀 ●출산**이민규 평택 생산물류팀 | 박성진 평택 생산팀
- 조의**이정철 평택 생산팀[모친] | 박근배 평택 생산팀[장모] | 이호영 광주 영업2팀[조모]

세아에샵

- 입사**김두근 전략사업팀 | 진승래 경영지원실 | 신윤성 해외영업팀
- 결혼**임근영 재경팀 | 최기택 생산팀 | 전희연 재경팀 ●출산**이상선 생산팀

강남도시가스

- 조의**최태열 공급관리팀[부친]

세아로지스

- 입사**이흥재 포항하역팀[전입] | 최원이 광양영업소[전입] | 박성연 군산하역팀 | 이시병 군산운영팀 ●출산**배기동 군산운영팀

Quiz¹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 주세요.
정답표시는 업서에 해주세요.

원본



문제



*지난호 퀴즈 정답



*지난 퀴즈 당첨자

박은진 서울 노원구 원계동
최민지 부산 금정구 부곡3동
최정규 대구 달서구 호산동
최연희 포항 북구 흥해읍 성곡리
윤광섭 강남도시가스
최현정 김해 장유면 대청리
이석호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최승준 용인 수지구 풍덕천2동
박정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경미 세아제강

*〈세아가족〉사보기자

박승균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고재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이동진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서울)
이태원 세아특수강 혁신파트(본사)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기획팀
손은숙 세아에샵 경영지원실
김종훈 세아메탈 경영기획팀
이상기 세아이앤티 플랜트사업지원팀
김민구 세아엠앤에스 서울사무소
이근기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지원팀

SeAH Reader's

세아베스틸 생산관리팀의 완벽한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 같아서 칼럼을 읽는 저조차도 명랑해지는 듯했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부러운 팀이었습니다.

양경미 세아제강

2010년 하반기 공채 사원들의 소개가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회사에 다니던 때 가졌던 열정과 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이 세아에서 더욱 밝고 힘차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박정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세아특수강 절친 삼총사의 모습이 보기 좋군요. 그들의 우정이 잘 느껴졌습니다. 절친 삼인방과 함께 식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젊은 세아인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최현정 김해 장유면 대청리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세아가족 신바람 캠페인 「배려」편



“오늘은 제가 쏘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사무실,
오늘도 출근 1등인
신입사원 김세철 씨는
상큼한 미소를 띠며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세아의 가족들이 하나 둘씩 출근하자
용기를 낸 세철 씨가 별떡 일어나 외칩니다.
“팀장님, 오늘은 제가 쏘니다!”

“와~ 우리 막내 커피 타는 솜씨가 예술인데?”
“고마워요, 세철 씨. 얼굴만 잘 생긴 줄 알았더니 통 큰 사람이네?”
센스있는 막내 세철 씨의 얼굴에도
팀장님, 과장님, 대리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열정 환상곡을
연주한다!



세아 E&T 플랜트사업부 산업기기파트 영업팀 박영원 과장
거듭된 도전과 재기 넘치는 열정, 새로운 발상을 가진 그는
멋진 악보를 그리는 세아 E&T의 모차르트!